

독일, 모빌리티 데이터 제공 법제화 및 모빌리텍 플랫폼 기반 데이터 공유 생태계 구축

해당국가	독일	기관(기업)	독일 연방의회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로교통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□ 독일 연방의회는 2026년 3월 26일 본회의에서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시스템(IVS)* 법안을 신규 제정하여 모빌리티 데이터의 디지털 교통정보 교환 플랫폼**에 디지털 제공을 의무화

* 지능형교통시스템(Intelligente Verkehrssysteme) : 도로교통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교통 흐름 최적화, 안전 향상, 데이터 공유 등을 실현하는 시스템 체계이며, EU 차원에서 회원국 간 표준화를 추진

** Nationaler Zugangspunkt : EU IVS 지침(2010/40/EU)에 따라 회원국마다 운영하는 디지털 교통정보 교환 플랫폼

- 가결된 법안은 디지털 교통정보 교환 플랫폼의 법적 정착을 통해 도로교통 분야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적
 - 도로건설 당국과 도로 운영자는 도로 폐쇄, 속도 제한, 다리 및 터널 진입 조건, 공사 정보를 플랫폼에 디지털 형식으로 의무 제공
 - 경로 안내 사업자는 해당 교통 규제를 발령한 관할 기관으로부터 최신 데이터를 직접 이용하여 역주행자, 도로 위 물체 등 교통 경고 데이터는 국경을 넘어 활용

□ 독일 연방교통부(BMV)는 상기 플랫폼의 실체로 모빌리텍(Mobilithek) 플랫폼을 구축·운영하며 자체 기술 인프라 고도화와 외부 데이터 표준 연계를 병행 추진

- 모빌리텍은 BMV가 발주하고 연방도로연구원(BAST)이 운영하는 중립적 공공 플랫폼으로 웹 포털·실시간 데이터 교환·앱 개발 디지털 공간을 통합한 클라우드 인프라로 구축
 - 데이터 소유자가 사용 권한을 통제하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국제 데이터 공간(International Data Space)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
 - 시간표, 실시간 교통정보, 렌터카 및 공유 자전거 위치 등을 한 곳에서 조회 가능하나 모빌리텍 자체는 이용자용 안내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반 인프라 역할 수행
- 모빌리텍은 상업 데이터 거래용 모빌리티 데이터 공간*과 양방향 연계되며 유럽 표준 데이터 교환 형식인 DATEX II**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

* 모빌리티 데이터 공간(Mobility Data Space) : 자동차 기업·교통기관·지자체 간 상업 데이터 거래를 지원하는 비영리 데이터 공유 커뮤니티로 유럽 클라우드 이니셔티브 Gaia-X 산하에서 운영

** DATEX II : 도로 교통 정보 교환을 위한 유럽 CEN 표준(CEN/TS 16157)으로 교통 흐름·공사·사고·주차 등 정보를 XML 기반으로 표준화

- 2025년 상반기에 모빌리티 데이터 공간과의 완전 연계가 완료되어 모빌리텍에 게시된 공공 데이터를 모빌리티 데이터 공간에서 조회 가능하며, 공공·상업 데이터 교환을 통합 지원
- DATEX II 적용을 전기차 충전소 분야에 우선 도입하여 EU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(AFIR) 20조에 따라 2026년 4월 14일부터 충전소 운영사의 DATEX II 형식 데이터 제공 의무화

※ 출처 : 독일 연방의회(2026.03.26), Digitale Plattform zum Informationsaustausch für den Verkehr beschlossen
독일 연방교통부(BMV), Mobilithek – Deutschlands Plattform für Daten, die etwas bewegen